

건강하게 사는 약속 인하대병원이 이루어집니다

인하대 병원

www.inha.com

Well-being Interview 한국과학기술원 오준호 박사
의학정보 비만이 불러오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건강 책갈피 배꼽이나 사타구니가 볼록하면 의심해봐!!
동문/개원의 탐방 코아이버인후과, 한빛비뇨기과·피부과

09.10

2007 Sept·Oct Vol. 65

꿈을 잊지 마세요

울바시 쿠마리 싱 | 시인

어둡고 구름이 낀 것 같던 날은 잊어버리고
태양이 환하게 빛나던 날을 기억하세요,
실패했던 날은 잊어버리고
승리했던 날을 기억하세요.

지금 반복할 수 없는 실수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기억하세요,
어쩌다 마주친 불행은 잊어버리고
우연히 찾아온 행운을 기억하세요.

외로웠던 날은 잊어버리고
친절한 미소를 기억하세요,
이루지 못한 목표는 잊어버리고
항상 꿈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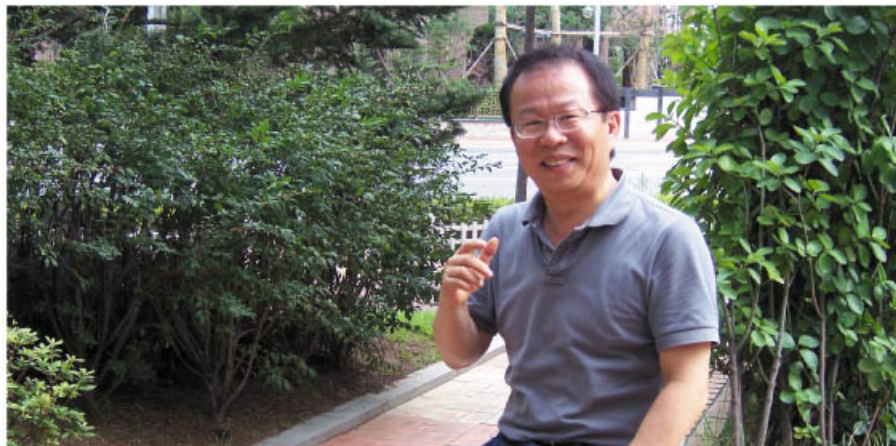
Contents

Well-being Interview	50넘어 로봇 휴보 아빠, 공상, 망상 등 딴 짓 좋아하는 남자!!	04
의학정보	비만이 불러오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06
건강채널피 1	배꼽이나 사타구니가 불룩하면 의심해봐!!	10
건강채널피 2	추석연휴 탈 없이 보내는 건강관리	12
사이버나이프	메스 없는 암 수술기 사이버나이프	14
스페셜 칼럼	의료마케팅,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6
<hr/>		
글이 머무는 풍경 1	꿈속에서...	19
전공의 24시	응급상황은 예상 문제, 많이 맞혀야 하는 스피드 퀴즈!!	20
글이 머무는 풍경 2	경남 합천 해인사,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다.	22
학생자원봉사활동 후기	학익여자고등학교 김세희 / 인명여자고등학교 민찬미	24
포토스클럽	동심의 세계는 끝도없는 무한도전이네요.	25
<hr/>		
특목진료상담	불면증도 치료 받아야 하나요? 외	26
특목약물상담	약은 왜 '식후 30분'에 먹어야 할까?	27
동문/개원의 탐방	코아이버인후과 / 한빛비뇨기과 · 피부과	28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29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안내 및 자원봉사활동 소개	31
<hr/>		
파랑새소식	세계유방암 학술대회	32
Quiz Quiz	퀴즈 퀴즈 제39회	33
알립니다	발전기금, 인사동정, 건강교실 안내, 무료공개 강좌	34



웰빙이라는 말이 이미 욕심, 배불리 먹지 않는 것이 웰빙

신 넘은 로봇 휴보 아빠, 공상, 망상 등 딴 짓 좋아하는 남자!!



50대는 아톰, 40대는 태권브이 그리고 지금의 10대는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며 로봇을 갖고 싶은 꿈을 꾸다. 내 말대로 움직여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실현시킨 이가 있다.

공상, 망상, 말하기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또 푹푹딱딱 무엇이든 만들기를 좋아하는 오준호 박사가 바로 주인공이다. '재도 했는데 뭐 나도 해보지 아님 말구'라는 생각으로 재미있게 시작했다는 그가 출생시킨 로봇 휴보, 휴보를 만들 수 있었던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또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지피지기 건강법'을 들여보자.

내 시간의 50%는 딴 짓으로 휴보 탄생

일본에서 탄생시킨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 '아시모'를 보자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3년 만에 한국형 이족보행 휴보를 탄생시킨 오준호 박사에게 어떤 비결이 있을까 궁금해진다.

오 박사의 로봇 홀릭은 어린 시절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공상과 학 만화를 좋아해 아톰, 육백만분의 사나이, 소머즈, 우주 가족 등을 아직도 기억한다. 비행기, 증기자동차, 로켓 등을 직접 만들어보고 뭐든 들여다보고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다.

"휴보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자료와 정보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준비된 자세였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싸움은 숫자로만 하나요?"

적은 예산, 아쉬운 원천기술 등의 조건들은 휴보에 대한 오 박사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한마디로 오 박사는 '좌우간 열심히 했다'로 결론을 내린다. 잠을 못 자면서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깨어있는 동안 집중했다는 것이다.

오 박사는 늘 자신의 시간 50%는 논다고 말한다. 똥굴똥굴 놀고 망상과 공상을 한다. 또 다큐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잡지를 뒤적인다. 그러나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아무도 못 말린다. 이러한 그의 타고난 천성, 근성이 휴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20보 보행은 무조건 승차의 괴변~~ 내 발은 세크웨이로

어떤 면에서든 아직은 학생 위에 설 수 있는 '나'다. 기본적인 것은 개방, 그러나 야단은 무섭게, 그 다음은 곧 잊고 함께 히히덕거리며 웃어버린다. 휴보를 만드는 동안 절대 20대의 뒤지지 않는 열정을 자랑하는 오 박사다.

3, 40대까지는 골프, 수영,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물을 무서워해서인지 수영은 호흡에서 걸려 안 되고 테니스, 골프는 별 재미를 못 느낀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오 박사는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골프를 다시 해 볼 작정이다. 그나마 그가 골프를 선택 한 이유는 골프채가 과학적이라는 데 있다. 똑같은 공을 치는데 작대기(?)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다. 바퀴 2개 달린 세그웨이(Segway)를 만들어 교내 식당갈 때도 이용하던 오 박사는 주위시선이 다가워 얼마 전부터 이용을 그만두었다.

“변명일지 몰라도 운동과 노동은 구별하지는 겁니다. 쇼팽이나 밥 먹기 위해 걸어가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니까 노동, 운동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은 정말 운동이죠.”

‘20보 보행은 무조건 승차!’ 라는 이상한 이론도 펼칠 정도다. 부친도 사실 숨쉬기 운동 외에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곧 90을 바라보는데 건강하셔서 유전적으로 타고나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한다. 그러나 곧 골프를 시작할 것임을 또 강조한다.

절대 점을 고정시키는 별보기 운동, 휴식과 창작의 힘!

누구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다. 휴보를 만드는 과정에도 그렇고 만들고 나니 더 책임감이 느껴져 그렇고..... 이런 그에게 최대의 휴식이자 창조와 재미를 선사하는 시간은 ‘별보기’이다.

“별을 본다는 표현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아요. 망원경을 쳐다보는 것이죠. 별은 절대 무한대이죠. 절대점입니다. 항상 돌고 있는 지구 속에서 그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점을 망에 고정시켜야 하는 재미, 바로 그거죠.”

별을 쳐다볼 수 있는 망원경도 뭐든지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오 박사가 직접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워밍업으로 기분을 낼 때는 계룡산으로, 본격적으로 몰입할 때는 무주의 적정산을 찾는다.

바라본 별을 사진으로 결과물을 보는데 장비를 만들고 설정하는 자체에 대한 흥미,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50대의 웰빙이란, 두끼만 먹어도 되는 것~

한때 로마인들은 입에 넣은 음식을 맛만 보고 뱉어버렸다고 한다. 배가 불러지면 많은 음식을 즐기지 못하고 살만 찌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치스러운 풍조는 결국 로마를 멸망의 길로 들게 했단다. 오 박사가 말하는 웰빙도 이와 비슷한 듯싶다. 전 세계를 생각하면 굶주린 사람도 많은데 지나치게 소비지향적인 과잉에서 잘못 시작되는 웰빙을 지적한다. 인간의 만용에서 만

들어진 것이 아니기라는 생각이다.

젊은 시절에는 먹는 것에 대한 욕망으로 배가 부르도록 먹던 때도 있지만 언제부터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면서 두끼만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가치 있는 웰빙이란 지금처럼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생산성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써 별미를 찾아먹는 스타일은 아니다.

잘 사는 비법, 그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방법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오 박사에게는 기계 만지는 것이 최대의 재미다. 로봇 휴보 역시 재미와 스트레스를 푸는 일로 시작한 것이다.

“제가 건강하게 사는 길은 로봇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차피 나이는 먹는 거고 충분히 움직이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시작 할 수 있고.....”

웰빙이라는 말도, 숫자에 불과하다는 나이 역시 그에게 특별한 개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더 웰빙인 ‘재미’가 그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약점을 알고 있어 오히려 자신만만, 지피지기법!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와 동창인 오 박사는 친구 따라 인하대병원에 갔다. 병원이라고는 별로 가 본적 없는 그는 그 덕에 종합검진을 받았다. 이제는 인하대병원의 고객이 된 셈이다. 위험인자가 있는데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이 건강의 적이라는 신 박사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친다. 미리 알고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박사는 7, 8년째 본태성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 사실 오 박사는 순환기 쪽에 약간의 부담을 안고 산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 미리 조심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지피지기 웰빙법’이 그의 지론이다.

병원의 양면성을 오 박사는 말한다. 치료한다는 전문적인 것, 사람을 대한다는 서비스, 이 둘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동안은 기술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고객 서비스가 더 강조되어 병원에 가면 일대일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기본이 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한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 직감으로 볼 때 진료장비도 최신이었던 인하대병원이 역시 서비스도 최고이기를 또 바란다. 그의 베스트 프렌드처럼.....

일본의 ‘아시모’에 맞선 휴보를 탄생시킨 오준호 박사, 목숨을 거는 욕심은 없지만 자존심을 건 도전은 있고, 포로가 아닌 프로로 재미를 느끼면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에너지가 있다.

개인의 안위적인 웰빙이 아닌 만용을 버린 최소한의 웰빙에 더 의미를 둔다.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는 것, 그 속에서 나를 알고 방어하며 재미있는 삶을 오 박사는 추구한다.

자신의 몸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한 웰빙임을 새삼 느낀다.

이정희 | 자유기고가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5명 중 1명이 비만이다. 비만은 외형적으로 보기 좋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아줌마 같은 모습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로 한다.

● 비만과 친한 질병 연재 순서

3·4월호 고혈압 | 5·6월호 당뇨병 | 7·8월호 지방간 | 9·10월호 비만으로 인한 부인과 질환 | 11·12월호 고지혈증



비만이 불러오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사춘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요구!!!

상당수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환자가 체중을 줄이면 호르몬상태가 호전된다. 그러나, 과체중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 대부분이 체중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영구적인 체중 감소 계획이 필요하다.

체중 감소에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은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다. 걷기나 수영같은 유산소 운동은 천천히 시작해서 속도와 거리를 점차 늘려야 한다. 정기적인 활동은 체중 감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다.



이병익 교수 | 산부인과

비만 급증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증가 추세



1935년 양측에 다낭성 난소와 무월경, 다모증 및 비만을 동반한 경우를 'Stein-Leventhal 증후군'이라 명명한 이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 질환은 단독질환이 아니라 여러 질환의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병리학적 특징이나 방사선 면역측정법에 의한 생화학적 지표가 처음에는 진단의 기준을 이루었으나 이후 초음파의 도입으로 진단적 기준이 좀 더 여유로운 상태다. 워낙 임상양상과 내분비학적 변화양상이 다양해서 현재 이 질환은 어떤 특정부위의 결합보다는 기능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임상양상과 병리학적, 내분비학적 및 대사이상을 보이는 질환의 복합군으로 여겨진다.

질환의 빈도는 대개 7~10%로 인종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춘기를 전후해서 월경이상, 여드름 같은 남성호르몬의 과다 분비와 비만을 호소하게 된다. 대개 집안의 가족력을 동반하므로 어머니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보였던 경우 조기진단이 요구된다. 이 환자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병초기인 사춘기에는 주로 비만이나 여드름으로 소아과나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게 된다.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월경 이상이 동반되어 산부인과를 찾게 되며 가임연령에 들어서면 무배란으로 인한 불임 증을 보여 불임클리닉을 방문하게 된다. 그 후 가임연령이 지나면 비만과 남성호르몬의 과잉분비로 인슐린 저항성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나타내 내분비 내과나 심혈관 내과를 찾게 된다. 계속되는 무배란과 월경 이상은 결국 자궁내막의 증식을 초래해 자궁내막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위험성을 낮추는 치료가 주종을 이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영양공급이 과다해져서 비만의 청소년들이 급증해서 여성의 경우 사춘기 조발증 및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비만에 따른 성인병은 대사성 질환으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비교적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비만으로 인한 남성호르몬의 과잉상태와 월경 이상을 동반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특히 여성에 있어서 사춘기 이후부터 가임연령 및 중년기까지 불임이나 자궁내막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이제는 널리 알려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임, 담석증, 자궁내막암, 유방암등의 증가도 아마 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원에서라도 과거에 비해 이런 질환의 환자가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자궁내막암도 발병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빈도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비만의 퇴치는 성인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불임이나 암 발생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는 상당히 쉬우나 치료를 통해 환자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여드름, 다모증 등의 남성호르몬 과잉이 치료의 목적이거나 항안드로젠 제제나 경구피임약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불임이 치료 목적이거나 배란유도제로 크로미펜을 선택하거나 최근들어서는 항 당뇨약을 통해 배란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치료법이다. 비록 불임이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배란이 지속되는 경우 자궁내막암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프로게스테론을 통한 소퇴성 출혈을 야기시켜야 한다.

치료 목적과 관계없이 비만으로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일반적인 비만치료도 병행되어야 치료효과가 상승할 것이다. 운동, 식이요법 및 약물요법을 통해 비만을 조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중 줄이면 호르몬 상태 호전

당당수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환자가 체중을 줄이면 호르몬 상태가 호전된다 그러나, 과체중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 대부분이 체중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영구적인 체중 감소 계획이 필요하다. 체중 조절 계획을 제시하거나 체중 조절 기관들을 권장하는 의사도 있다. 지역 병원이나 지지 단체나 동호회등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나 다이어트 약은 매우 솔깃하게 들리지만 별로 효과가 없고, 다른 내과적 문제만 가져오게 된다.

체중 감소에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은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다. 걷기나 수영같은 유산소 운동은 천천히 시작해서 속도와 거리를 점차 늘려가야 한다. 정기적인 활동은 체중 감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다.

호르몬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연관된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치료를 중단하면 대개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효과적인 호르몬 치료는 저용량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이 약은 난소의 호르몬 생산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안드로젠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피임약은 흡연여성이나 35세가 넘는 여성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다모증이 문제가 된다면 스피롤락톤을 단독 사용하거나, 피임약과 병용하면 도움이 된다.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다모증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제스테론을 1개월 단위로 복용하면 정상적인 월경이 나올 수 있다. 프로제스테론은 월경 주기를 조절하고, 지나친 에스트로젠 노출에 의한 자궁 내막의 이상을 막는다.

치료의 공통요소로 비만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체중감소를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약물요법이 병행되면
치료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수술요법과 정신적인 문제

아주 드물게 클로미펜이나 성선 자극 호르몬을 사용하고 나서도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배란 기능을 되살리기 위하여 난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수술은 복강경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정신적인 문제는 다모증이나 비만을 동반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처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스스로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불편해 한다. 과다한 털의 성장에 대해 자기 의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고민들을 의사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의논하여 내과적, 성형외과적 치료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사춘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요구

여성의 7~10%에 달하는 비만, 남성호르몬 과잉, 월경이상을 보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사춘기 이후 여성에서 볼 수 있는 주된 대사성 질환이다. 중년기 이후 성인병(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과콜레스테롤혈증)뿐만 아니라 여드름 다모증 등의 피부 미용과 가입기 연령에서 불임의 주된 원인이 된다. 중년기 이후 자궁내막암의 근원이 되는 아직 기전이 분명치 않은 질환으로 환자는 사춘기 이후부터 중년기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질환자체가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요구하므로 환자는 만족감이 떨어져 우울증이나 행동 및 정서장애 같은 정신과적 문제도 야기하므로 정신적인 지지를 요하는 치료도 요구된다. 치료의 공통요소로 비만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체중감소를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약물요법이 병행되면 치료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환자의 증가는 결국 여성의 경우 사춘기 이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가와 직결되므로 이제는 우리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낭성 난소의 복강경 및 초음파 소견



최윤미 전문의 | 외과

최근 축구선수 김남일이 탈장의 일종인

'스포츠 헤르니아'로 아시안컵에 불참하게 되면서 탈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탈장은 복강내의 장기가 원래 위치해야하는 복강내에서

복벽의 결손 부위를 통해 탈출하여

비 정상적 위치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며 서혜부 탈장, 배꼽 탈장,

반흔(절개 부위) 탈장 등이 비교적 흔하다.

김남일도 쓰러뜨린 탈장,

배꼽이나 사타구니가 불룩하면 의심해봐!!



서혜부 탈장

서혜부 탈장은 크게 간접 탈장과 직접 탈장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 탈장의 원인은 서혜부 룬이 열려있어서 그 통로로 탈장이 되는 것으로 소아탈장의 거의 대부분과 성인의 반수 이상이 간접 서혜부 탈장이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고환이 사타구니(서혜부)를 타고 내려와서 음낭에 위치하게 된다. 고환이 내려온 길이 막히는 것이 정상이나 일부에서는 이 길(서혜부 룬)이 열린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이때 서혜부 탈장이나 교통성 음낭수종(communicating hydrocele)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막히지 않은 구멍이 비교적 작아서 물만 흘러나와 음낭에 물이 찬 경우를 교통성 음낭 수종이라고 하며 신생아의 경우에는 많은 수에 있어서 음낭 수종이 발견되는데 이는 대부분이 비교통성 음낭 수종(non-communicating hydrocele)이다. 이는 고환이 내려왔던 길이 막히기 전에 배속에 물이 음낭으로 내려와 고여 있는 상태로 이미 배와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음낭에 고여 있는 물이 흡수되어 자연 소실하게

된다. 대개 생후 6개월 이전에 흡수 되어 없어지므로 이것은 그때까지는 수술 없이 관찰해도 된다.

서혜부 탈장의 경우 진단 즉시 수술을 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탈장은 100명 당 3~5명 꼴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직접 서혜부 탈장은 하셀바흐 삼각형이라는 서혜부쪽에 근육이 취약한 지점을 직접 장이 밀고 나오는 것으로 고령으로 근육이 약해지고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에 생긴다.

서혜부 탈장의 증상은 사타구니(서혜부)가 불룩 튀어나왔다가 없어지고는 하는 것이다. 이는 배속에 장이 서혜부에 있는 구멍 혹은 약해진 쪽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이다. 별로 아프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고 나면 복압이 높아져 장이 빠져 나왔다가 눕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면 도로 배 안으로 들어가서 불룩 나온 것이 없어진다. 이러다가 점점 튀어나오는 부분이 커지고 심하면 복원되지 않고 계속 나와 있게 되고 통증 및 복부 팽만 등의 장 폐색 증상이 나타난다.



서혜부 탈장은 빠른 수술이 필요 _

서혜부 탈장이 발견되면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해 줘야 하는데 감돈이라는 합병증이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돈은 탈장된 장이 구멍에 조여지고 부어서 도로 복강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심하게 아프고 탈장된 부위가 부어오르며 장이 막히므로 토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차단되어 장이 썩기 시작하고(괴사) 응급수술을 받게 된다. 또한 감돈된 장이 고환으로 가는 혈관을 누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하여 고환에 혈액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지체되면 고환이 죽어 버리는 합병증도 발생한다. 장이 많이 상한 경우에는 장을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감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서혜부 탈장이 있으면 특히 간접 탈장인 경우 이런 감돈이라는 합병증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 감돈은 6개월 미만의 영아와 나이 많은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나이가 어릴수록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빨리 구멍을 메워주는 수술을 시행 받아야 한다.

수술은 소아는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며 소아 마취 의사가 있는 곳에서 경험 있는 소아외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좋다.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감기나 모세기관지염, 심장기형 등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마취의 위험은 크지 않다. 소아 마취의사가 있는 대학 병원에서 시행하는 마취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은 하반신만 마취하고 수술을 시행하는데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서혜부쪽 신경만 부분 마취하고 시행 할 수도 있다. 성인은 간접 탈장의 경우에도 구멍이 너무 커서 구멍을 막는 수술로는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다. 요즘은 인공막을 이용한 무장력 수술을 시행하여 통증과 재발을 줄인다. 재발된 경우나 양측 탈장일 때는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벽 안쪽에 넓게 인공막을 삽입하는 수술을 전신 마취하에 시행하고 있다.

수술 후 합병증 _

서혜부 탈장의 수술 후 합병증은 음낭 부종, 통증, 및 재발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재발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소아에서는 거의 재발이 없고 대신

한쪽에 탈장 수술을 하고 반대편에 생기는 경우가 10%정도 있다. 이것은 재발이 아니라 발견이 늦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성인에서도 비만이나 폐기능이 나쁜 환자 및 복막 투석 등으로 복압이 증가 되어 있는 환자 등에서 재발이 보고된다.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진단이 늦거나 감돈된 후라면 수술이 커지고 합병증도 증가하게 된다. 술 담배는 2개월 이상 끊어야 하고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드는 등 복압을 심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1개월 정도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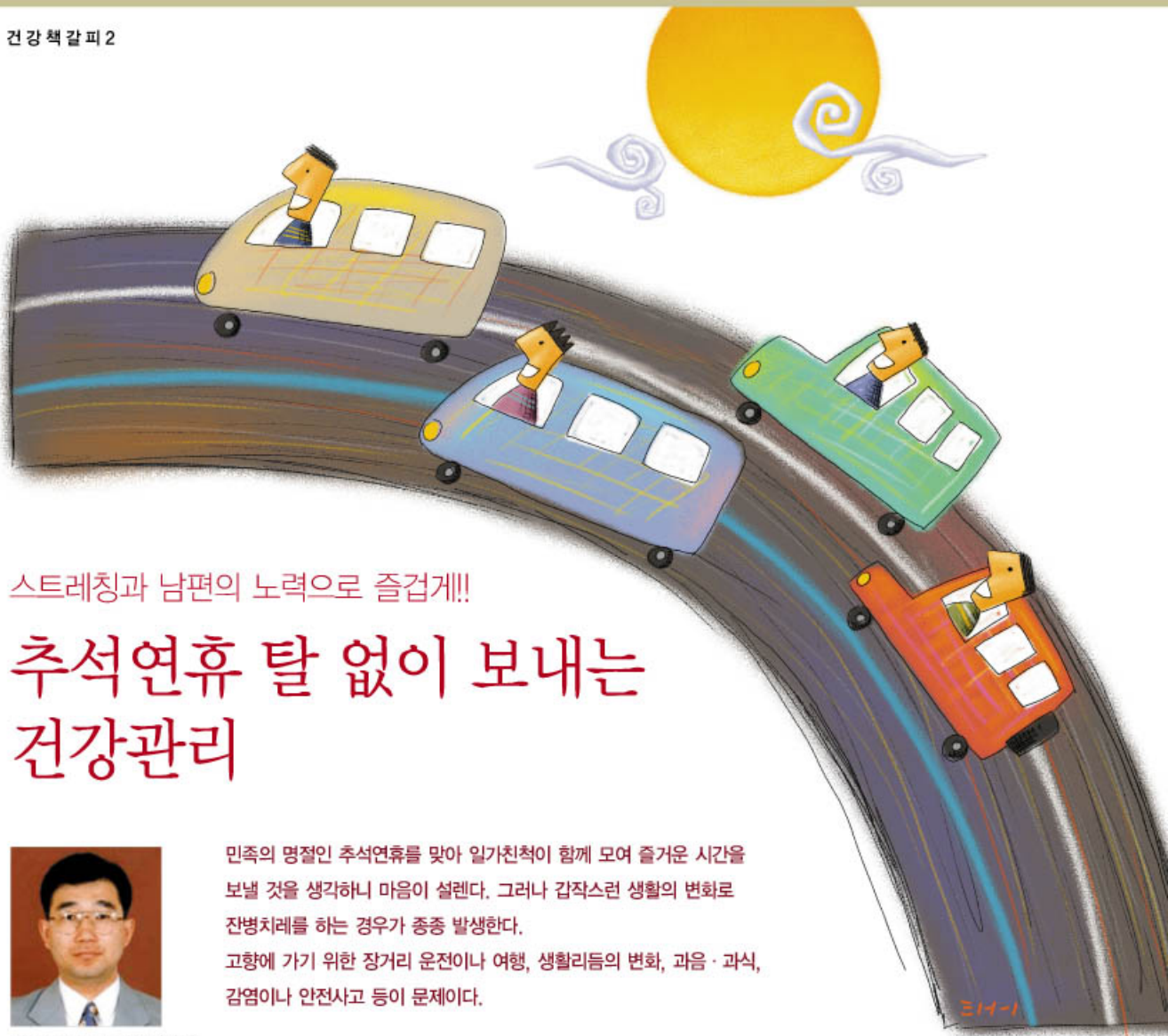
배꼽 탈장과 반흔탈장 _

배꼽 탈장도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배꼽륜이라는 것이 막히지 않고 남아있어 그 공간으로 장이 튀어나와 배꼽이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생후 바로 발견이 되지만 대개 저절로 막히기 때문에 만 4~6세 까지 지켜보면 80% 이상에서 없어진다. 그러나 배꼽륜의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뇌수종증으로 선트 수술을 한 아이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성인에서도 간경변증 등으로 복수가 많이 차고 복압이 증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서는 간혹 나타나기도 하고 드물지만 감돈이 있을 수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반흔 탈장은 복부 수술을 받은 상처 부위에 생기는 것으로 피부 및 피하 지방조직 밑의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결손으로 생긴다. 복부 수술 후 10%에서 생긴다는 보고도 있다. 원인은 복부 수술 후 상처부위 감염으로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심했던 환자나 당뇨, 지속적인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환자, 영양 상태가 나쁜 환자, 고도 복부 비만 환자, 고령, 복수가 있는 환자 등에서 잘 나타났다.

탈장 부위가 클수록 오히려 감돈의 위험은 적으나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 탈장부위가 작으면 일차적 봉합술이 가능하고 부위가 4cm 이상으로 크면 재발 확률이 높아서 인공막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탈장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치료시기가 늦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수술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생된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아 완치해야 한다.



스트레칭과 남편의 노력으로 즐겁게!!

추석연휴 탈 없이 보내는 건강관리



최지호 교수 | 가정의학과

민족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아 일가친척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렌다. 그러나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로 질병치레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고향에 가기 위한 장거리 운전이나 여행, 생활리듬의 변화, 과음·과식, 감염이나 안전사고 등이 문제이다.

장시간 운전과 여행 _

고향으로 가기 위해 장시간 운전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소부족과 근육의 피로가 문제 될 수 있다. 하품이 나올 때는 산소부족을 생각하여 창문을 열고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차량정체로 장시간 좁은 운전석에 앉아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 몸에 무리가 온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근육만을 지속적으로 수축시키기 때문에 이들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 근력이 약해지고 경직되어 긴장성 근육통을 일으킨다. 뒷목과 어깨가 뻐근해지고 뒷골이 당기며, 두통과 함께 눈이 피로해진다. 허리와 엉덩이 관절의 근육과 인대도 긴장이 되어 통증이 온

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스트레칭이다. 운전 중 차가 잠시 정차해 있을 때 운전석에 앉은 채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모두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 차에서 내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간단한 체조나 심호흡, 스트레칭을 하도록 한다. 운전 후에는 찜질이나 마사지를 통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또 멀미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평소에 멀미로 고생을 하는 사람은 미리 예방하기 위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붙여서 약이 흡수되는 패치형은 최소 4시간



전에 붙여주어야 하므로 출발하기 전날에 붙여준다. 패치형은 졸리거나 입이 마르고 눈이 침침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먹는 약은 차타기 30분 전에는 먹어야 하며 졸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상하지 않은 멀미가 나는 경우 높은 다거나 바람을 쐬는 것이 좋다. 진동이 심하면 멀미도 심해지므로 진동이 가장 적은 쪽인 승용차의 앞쪽, 배의 중앙, 비행기의 날개 쪽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리듬변화

연휴 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 등 일상과는 다른 일에 시달리므로 생활리듬이 깨지고 피로가 쌓이는데다 평상시와 다른 환경에 노출돼 정신적으로도 흥분이 되어 연휴 뒤에 피로감과 졸린 증상, 작업능률의 저하, 전신근육통, 요통, 관절통, 두통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음주나 화투놀이로 밤을 새기 쉬운데 가능한 평소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잠을 늦게 잤더라도 아침 기상시간을 평소처럼 지켜주는 것이 좋다. 부족한 잠은 일단 일어난 다음 짧은 시간의 낮잠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연휴가 끝나기 하루 전쯤에 미리 귀가하여 일상 생활리듬을 되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부들은 평소보다 훨씬 늘어난 가사 노동과 시집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비롯해 두통, 소화장애, 피로감, 불안, 우울증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남편을 비롯한 주위 가족이 가사노동을 골고루 분배해주어야 하고 가족 내 갈등을 풀어주기 위한 남편의 노력이 중요하다. 피할 수 없는 가사노동인 경우 가능한 식탁에 편히 앉은 자세로 일을 하다가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할 때는 주위 사람들과 흥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과식, 과음

평소에 먹지 않던 맛있는 음식을 대하게 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먹다보면 과식을 하기 쉽고 과음을 하기도 쉽다. 과식 후에 소화제를 먹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과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고 평소처럼 적당량만 먹는 것이 예방책이다. 또 음식을 많이 차리지 말고 식사를 할 때도 대화를 하며 골고루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식, 과음으로 복통이나 설사,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한 끼 정도 굶는 것이 좋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꿀물 등으로 탈수를 예방하며 속이 괜찮아지면 미음이나 죽부터 다시 먹도록 한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신장질환, 간질환, 비만 등이 있는 경우 고열량, 고 콜레스테롤 성분의 음식에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가지 나물이나 김치 등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전, 잡채, 고기 등의 섭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식사 후 식혜나 수정과, 과일 등도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집단생활, 안전사고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 감기나 독감을 주의해야 한다. 노인과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손발을 자주 씻고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 좁은 공간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만큼 실내에서 절대 금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추석연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어린이 화상이다. 음식 준비나 난방을 위해 여러 화기를 집안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화기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상 시에는 된장이나 감자를 붙이는 민간요법은 절대 금물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하게 흐르는 찬 수돗물로 상처를 식혀주는 일이다. 단지 피부가 빨갛게 보이는 1도 화상의 경우에는 이런 응급처치만으로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지만 물질이 잡힌 2도 화상이나 피부가 하얗게 변한 3도 화상은 충분한 시간동안 찬 물로 식혀준 다음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병원에 도입될 메스 없는 암 수술기 사이버나이프

메스 없이 암을 수술하는 장비는 80년대 중반부터 뇌종양위주로 시행되어오다가 2001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전신의 종양에서 무혈, 무통의 메스 없는 암 수술이 가능케 되었다.

일반 방사선 치료법(Conventional Radiotherapy)은 선형가속기(Linac)에 의한 저선량(180cGy, 180센티 그레이)에너지를 20일~60일 정도 매일 조사(照射)를 받으며 장기간 치료를 하는 치료법 이라면, 첨단 방사선수술법(Radiosurgery)은 고선량(1000cGy~6000cGy)에너지를 1~3일의 단기간 치료로 메스 수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치료 방법으로써, 사이버나이프가 유일한 전신용 전용 방사선수술 장비이다.

사이버나이프(Cyberknife)는 로봇 팔에 특수한 소형 선형가속기를 탑재하여 사람의 팔과 같이 어느 위치나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며, 타겟(암)에만 정밀, 정확하게 에너지를 조사(Delivery, 照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사일 항법 장치와 동일한 영상유도장치를 응용하여 암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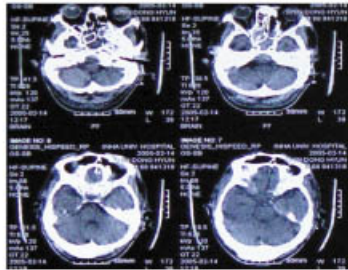
한 번 조사에 고선량 에너지를 조사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200개의 작은 에너지 빔(Beam)을 로봇 팔이 자유 각도로 접근하면서 암 조직에만 정확하게 집중 조사되도록 하여 일반 방사선치료에너지의 10~30배의 고 선량을 집중 조사하면서도 주변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이버나이프는 1994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 존 애플러박사에 의해 개발되어 1996년 1세대 사이버나이프가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 사용되어 왔고, 이때의 장비는 초기 로봇기술로 인해 뇌종양과 두경부 종양만 치료가 가능했다. 그 후 제2세대 사이버나이프는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이때도 뇌종양과 두경부 종양만 치료가 가능했다.



Cyberknife

2001년 8월 전신 암 치료에 대한 FDA승인이 허가되면서 제3세대 사이버나이프가 탄생하여 뇌종양, 두경부암과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폐암, 간암, 췌장암, 그리고 척추암, 전립선암 등 전신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초가 확립되었다.



4세대 사이버나이프 시스템

한국은 원자력의학원이 제3세대 사이버나이프 도입을 결정하여 2002년 6월부터 사이버나이프 암 치료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700여명을 치료하여 암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를 가능케 하였다.

그 후 강남성모병원이 2004년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하여 700여명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암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이 호흡을 하므로 생기는 장기의 움직임(폐는 2~3cm 움직임)이다. 폐암치료의 경우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여 치료범위를 넓게 잡아서 치료하는데 이때 불가피하게 정상 세포에도 많은 방사선 손상을 주게 된다. 사이버나이프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2004년 말 호흡으로 움직이는 장기를 추적(Breath Movement Tracking)하는 기능이 개발되어 전신 암 치료의 방사선수술 대중화를 가능케 하여 2005년부터는 체부 방사선수술 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이버나이프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제4세대 사이버나이프가 2006년 하반기에 개발되어 현재 건양대학병원이 금년 4월부터 사용 중에 있다.

4세대 사이버나이프는 종전의 사이버나이프에 비해 방사선에너지 조사량이 1분당 300MU에서 600MU로 증가되어 치료시간이 50% 짧아져서 머리종양은 20~40분, 체부 종양은 30~60분 정도로 치료가 완료 된다. 또한 체부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종양에 금침 표적물을 삽입했으나 4세대는 척추종양, 폐암에서는 표적물 삽입 없이 컴퓨터 영상 추적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해 졌다. 다른 뇌종양 방사선 수술장치가 머리에 프레임(머리 고정틀, 마취 후 부착)을 장치하는데 사이버나이프는 고정틀 없이 자유롭게 뇌종양을 치료한다. 폐암, 간암, 췌장암 등 전신 암 치료 적응증이 넓어져서 수술이 어렵거나 기피하는 환자는 사이버나이프로 암 수술의 효과를 재현할 수 있게 되어 방사선치료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사이버나이프 암 치료는 3일 만에 무통, 무혈로 치료가 완료되므로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 전신 암뿐 아니라, 삼차신경통, 뇌 혈관 기형, 간질, 파킨슨씨병,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고 치료비는 머리, 종양 및 질환은 의료보험 적용 약 300여 만원, 체부종양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 1000만원 정도이다.

현재 사이버나이프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100여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100여대는 도입 계약이 완료되어 설치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4세대 치료기로는 처음으로 건양대병원이 금년 4월 도입되어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인하대병원에서도 구매가 결정되어 오는 11월경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4세대 사이버나이프에 비해 인하대병원에서 도입하는 사이버나이프는 4차원 치료 계획이 가능하여 실시간으로 암의 위치를 추적하여 초정밀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종으로써, 이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유럽을 통틀어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종이다.

의료마케팅 성공사례 및 우리병원 추진과제 중심으로

의료마케팅,

그
처
음
부
터
마
지
막
까
지

길 이 넓 다 고 많 은 사 람 이 오 가 는 것 은 아 님 니 다 _

그 길을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크고 요란한 소리 보다는
고객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을 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몸이 불편해서, 어디가 아파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겠지요.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만 있다면, 그 이유를 인하대병원이 만들어 준다면, 고객의 발걸음은
다른 병원이 아닌 인하대병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김정희 부장 | 원무보협팀

미국의 어느 소도시에 시장을 독점하여 잘 나가던 장난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규모가
더 큰 장난감 가게가 바로 옆자리에 들어섰지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품질 좋은 장난감 가게'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장난감 가게가 반대편 옆자리로 비집고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싼 장난감 가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손님을 잃어버린 가게 주인은 고민에 고민
을 거듭 했답니다. 그러다 무릎을 치고는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간판에는 이러한 상호가 걸렸습
니다. '출입구' 라고

Medical marketing





여러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화번호가 왜 7자리(물론 8 자리도 있지만...)인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람이 기억 할 수 있는 숫자가 평균 7개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마케팅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 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그림이 확실한 impact를 주어 고객의 기억에 평생 남아 있는 것처럼 <고객이 얻는 궁극적인 가치나 효익을 강조하여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매로 연결 시키는 활동>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마케팅은 병원 경영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 병원들은 어떤 마케팅 성공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원들은 마케팅을 어떻게 시도 했는지, 그 발자취를 찾아 본격적인 의료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병원 서비스경영 사례

1. The Johns Hopkins Hospital

1) '환자 없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사들이 기술에 자만할 때 세계 최고는 물거품이 된다': 의사, 간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고객만족세미나'가 열리고, 병원장이 관리하는 '환자만족제안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 세심하고 철저한 환자관리 체계: 헬스링크(Health Link)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양의 건강, 의학 정보 제공한다

3) 개원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홉킨스 전용 전화를 운영한다.

4) Children's House : 환자의 만족도란 단지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며, 환자가 직면한, 또는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병원이 먼저 찾아 이를 충족시켜주려 노력한다.

5) 'International Services' 란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2. 캐나다 메디컬 센터(일본 도쿄 근교)

1) EMR(전자의무기록)을 환자와 의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조작하여, 진료 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EMR이 의사가 아닌 바로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Art in hospital'의 개념에 의해 각종 오브제들이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요즈음 미술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치유방법이 되는 것 같다.

3) 호텔처럼 꾸며진 병실과 발코니가 병원의 삭막함을 없애고 집과 같이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3. 미국 최고의 병원 메이요 클리닉

논스톱 스피드 진료를 모토로 하고 있는 이곳은, 환자의 질환이 여러 과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의사 3~4명이 한 곳에 모여서 바로 결정을 내려 환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 의사의 기본 진찰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환자의 동의를 받고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가능한 당일 날에 수술함으로써,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많이 줄였다.

국내사례

1. 고객 감동 경영의 삼성서울병원

1) 해피시리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른 서비스 주제를 정해 그날 하루 동안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happy talk, happy work, happy call, happy look 등

2) 외부 고객감동 경영 사례로 후수납제도, 재/퇴원 환자 진료비 ARS 운영, 석식 선택제 도입, 보호자 없는 병원, 환자 AFTER SERVICE, 찬찬찬 운동 등이 있다.

2. 각계 각층에서 견학 오는 친절의 대명사, 안동병원

'고객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모토로 정하고 일본 MK 택시에 직원들을 보내 친절을 배우고 경영방식을 병원에 접목시켜 나갔다. 이를 배우기 위해 삼성의료원, 중앙병원, 동부화재, 국민카드 등 각계의 방문단이 줄을 잇고 있다.

3. 피그말리온 효과의 주인공. 예치과 그리고 박인출 대표원장. 이 병원은 의사가 명함을 주면서 환자에게 인사를 먼저하고 진료상담을 해주며 귀가 후에도 궁금한 점



은 명함에 적합한 번호로 문의하도록 배려한다.

4.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꾸미고 환자 프라이버시 위주의 진료시스템으로 새단장한 **건국대병원**
6.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행하여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하는 **한양대병원**
7. 주차장에서 병원까지 노약자들의 이동을 돕는 전동카트를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마케팅,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최근 본원 이용의 지역적 동향을 보면 남구, 중구, 연수구 지역에서의 증가 추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고객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을 알려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마케팅의 성공적인 활동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고객 기반이 튼튼해야 하고 이 기반 위에 여러 요인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지역고객을 향한 시선의 첫 번째는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통한 지역적 유대강화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 대상 무료검진 행사, 건강공개 강좌 등을 통해 병원 이용률이 낮은 잠재적 고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용률 증가와 향후 고객층 확보라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병원'입니다. 관계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과의 약속은 환자 권리장전에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감동은 충성고객 확보와 입소문 마케팅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눈높이에 맞춘 진료설명, 진료 예약시간 및 회진시간 준수, 교직원들의 권위외식 탈피와 겸손한 자세,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진료자세 등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병원문화 조성은 곧 병원브랜드까지 상승과 더불어 수익성 증대에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증진센터의 VIP 마케팅이 좋은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대형병원들은 호텔급 전문식당, 스카이라운지,

푸드코트, 은행, 24시 편의점 등 각종 고급화된 부대시설들을 원내에 입점시켜 고객 편의 향상과 더불어 부대수입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전용공간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대형화를 통한 수익 증대에도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통합콜센터, 원스톱 전문센터, 통합검사실, 무인수납기 등 고객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각종 진료시설 및 장비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병원에도 고객센터 부서가 신설되어 여기에 기대를 해봅니다.

맺으면서 - 어떤 병원이 경쟁력 있는 병원입니까?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낚시꾼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잘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에 대해 예민하게 관찰해 환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 직원은 일반 고객과는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 진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 고객의 입장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고객은 대기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입원환자들은 음식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수납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의 심정은 어떤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입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비결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needs)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마법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객을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만큼 환자하고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을 포함한 소비자를 만족하고 기쁘게 해주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꿈속에서...

글 | 김준식

꿈에서 나를 만났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는 자고 있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너 어디가니
어디든 간다.
그러게 어딜?
어디든 간다.

나는
작아졌지만,
커져버렸다.

나를 뒤로한
나의 뒷모습에서
에메랄드와 아침 새소리를 들었다.



※ 글쓴이 김준식님은 적성진로실 김진영 차장님의 자제(子弟)분입니다.

생각도 못해본 변태스러운 것까지 알게되는 곳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를 살려내 달라는 보호자들의 절박한 간청과 그러한 보호자들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울부짖는 절망과 통곡의 눈물들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의 마음으로 왔다가 진료를 마치고 표정이 밝아져서 귀가하거나 입원을 통한 안도감으로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갖게 되는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응급의료센터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조용히 심방 예배나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 반면 밤중 취중환자들의 난동이나 행패에 맞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린 자식의 아픔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애절한 눈물이 있는 동시에 불륜과 탈선을 간접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생각도 못해 본 아주 변태스러운 것까지 알게 되는 곳이다. 또 갖가지 사연과 이유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오는데 자살시도가 성공(?)하여 이미 죽어서 오건, 죽기 직전에 오건, 주변 사람의 발견으로 떠밀려 오건, 본인이 겁이 나서 119에 신고해서 오건, 멀쩡하게 그냥 걸어서 오건...

아무튼 자살의 수단이 음독이었다면 정신과 상담을 통해 무조건 우리과로 입원하여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다.
 뉴스에 나오는 각종 사건 사고를 접하기도 하고, 기자들의 취재 전화와 경찰의 확인 전화에 답해주기도 한다. 시민들의 각종 상담 전화, 문의 전화, 중소 및 다른 병원에서의 전원 문의 전화에 시달리기도 한다.
 총 맞은 사람만 못 봤지 불만한 환자는 다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두 달 전에 총 맞은 사람도 드디어 봤다. 훈련 중 오발로 인해 사타구니에 탄환이 박힌 예비군이였다.
 술 취한 사람에게 먹살을 잡히기도 하고, 쌍욕을 들으면서 협박을 당할 땐 기분이 상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진료 절차가 매우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스스로 만족된다. 또 CT나 X-ray 오더만 냈을 뿐이고 검사가 끝난 후 괜찮다는 소견을 말했을 뿐인데도 그것에 너무 감사해 하며 인사할 때는 나도 참 기쁘고 흐뭇하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은혜로 의사가 되어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감격을 맛보는 구나 스스로 감사하다.
 1년차 초반엔 웬지 내가 근무하는 곳이 280만 인천 시민들



응급상황은 예상 문제 많이 맞혀야 하는 스피드 퀴즈!!

조태진 전공의 | 응급의학과 2년차

응급실하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늘 있어서 급박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곳을 쉽게 떠올린다.
 물론 인하대병원 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로서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호흡이 없고 심장박동이 없이 죽어서 온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것 이상으로 인간사 천태만상과 희로애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찾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지금도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커서, 애착이 많은 인천토박이 이기에 더욱 그런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응급실 모든 과에 대한 기본 지식 요구

응급의학과 의사는 환자 개개인 진료의 flow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triage를 나누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간 순위가 아닌 중증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의 활용을 적절하게 분배, 집중해야 한다. 때맞춰 적절한 시술과 약이 들어가고 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꺼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보면서도 전체 응급의료센터가 돌아가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가끔씩 있는 입원 환자로부터 생기는 골도 해결해야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질환을 빨리 판단해서 해당 과에 arrange하는 능력 또한 요구받는다. 쉽지만은 않지만 수련과정을 통해, 훈련을 통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능력이 개발된다.

응급의료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과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이 요구된다. 욕설을 퍼부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람, 무조건 빨리 해달라고 떼쓰는 사람,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를 못하면서 강짜를 부리는 사람 등등의 각양각색의 까다롭고 대하기 거북한 환자와 보호자를 컨트롤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사람 대하는 요령도 생기고 아는 것도 늘어나긴 했지만 난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함 투성이라 그만큼 도전의식도 생기고 그래서 의욕도 생기는 것 같다. 그러하기에 내가 수련 받을 시간이 점차 줄어든다는 생각 앞에선 긴장도 된다. 그리고 내가 했던 뼈아픈 실수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러함에도 신은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

센터에서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있다 보면 기계적으로 일하는 나를 볼 때가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내가 보고 있는 환자는 랩과 엑스레이와 이미징 스테디로 설명되는 객체일 뿐인 경우가 있다.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혹여 그 환자가 안 좋아져서 사망하게 되

라도 별로 그 생명의 멈춤에 대해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고, 주변의 울음과 '안 됐다' 라는 간호사들의 안타까움이 귀에 들리고 나서야 겨우 죽음에 대한 느낌을 받게 되는 서글픈 나의 모습을 본다. 그러나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누군가라면 그 관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생명의 개념이 들어가 나로 하여금 더 절박하고 애절하게 환자를 대하게 된다. 다른 환자에는 능숙하게 하던 기관 삽관과 세골하 정맥로 확보 시술을 심한 호흡곤란으로 오신 우리 큰고모부님께 하려 했을 때는 심하게 손을 떨었다. 생명은 절대 의미를 부여하는 신을 묵상할 때에야 상황을 초월하는 고귀함을 드러내는 것 같다.

응급상황의 대처능력 발휘 멋있는 진짜의사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를 대할 때는 마치 난해한 수학문제를 푸는 것 같다. 마치 '나의 이학적 검사 소견 더하기 그 사람으로부터 캐낸 현재와 과거의 병력들과 문진 더하기 랩과 엑스레이와 이미징 스테디의 조합으로 설명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다음 환자 또 다음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 환자의 내원 시간 기준으로 재깍재깍 시계가 돌아가는 촉박한 시간 안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스피드 퀴즈를 푸는 기분이 들기도 하다. 그것도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보는 스피드 퀴즈다. 이미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알고 있는 입원 환자를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임프레션을 세워 랩과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하고 그 결과 예상했던 것을 맞추었을 때의 희열이 있고 또한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짜 의사 같고 멋있는 것 같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과 경험들, 그때의 느낌들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깊이를 더해서 내 삶과 생각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다. 깊은 밤을 꿋꿋이 하루 당직이 끝나가는 동틀 무렵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싱그럽다. 어제도 무사히 보람찬 하루를 마친 후 맞이하는 아침이기에 몸은 고되고 마음은 가볍다.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고 아침마다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다.

시. 작. 이. 다 화려하지 않은 여름 휴가의 출발이다. 일상의 하루가 무료하고 마음 막막함에 무언지도 모르는 절에 대한 환상으로 해인사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 교통편도 모르니, 네비의 힘을 빌어 고속도로 곳곳 휴게소를 들러 주전부리 야금야금 혼자서 신났다. 가야산 입구 상쾌한 공기의 손님맞이에 흠뻑 들떠, 해인사 첫발을 디디며 드디어 시작이다.

입. 재. 식 무슨 군대도 아니고 습의사 스님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고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참으로 후회막급이다. 삼귀의, 반야바라밀다심경 등 글은 글이로되, 무슨 글인지는 도저히 알길 없고, 그냥 책보고 읽고 따라만 한다. 참으로 갑갑하다.

잠 찜질방 같은 후끈한 지장전에 20~30명 쟁기여 21시에 취침에 들라 한다. 십 수년을 혼자 살아온 나로서는 정말 곤욕스럽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3시에 기상하라 한다.

경남 합천 해인사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다.

새벽 별 하나 없는 캄캄한 길을 따라 계속 물소리 청명함에 귀를 씻듯 포항길의 끝은, 성철스님 사리탑전에서의 좌선 새벽공기 깊숙이 몸속에 들이고 머리 맑음으로 시작하여 마음 맑음으로 끝이 난 좌선의 기쁨은 새로운 깨달음이다. **강순자 대리 | 원무보협팀**





이렇게 기쁠 수가..... 첫날의 산사 하루 밤을 뜬눈으로, 이 틀째부터는 뜬눈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 코를 골면 자장가 벗삼아 그냥 무조건 잠에 폭 킁아 떨어진다.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좋겠지만..... 아주 그도 생각할 겨를없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잠에 빠져 든다.
새벽 3시 기상은 참으로 감내해 내야 하는 힘들이지만, 그 누구도 못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 불 새벽3시 북소리의 웅장함 속에서 대적광전에서 예불이 시작된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시간이 그리도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거의 한계에 달할 때쯤 예불 문과 함께 시작되고, 칼발 앞음과 큰절의 반복 속에 내 가족에 대한 안녕을 절로 기원하게 된다.

공. 양 발우공양 - 남남 찻찻 자유롭게 먹던 식습관에 몸이 밴 중생에게 발우공양은 참으로 힘들..... 묵연 속에 잊혀진 스트레스로 불일 못 보니 밥 양 절로 줄어 한 손가락 먹음에도 남겨지는 찌꺼기의 그 잔챙이를 승냥에 단무지 짹짹 씹어 마실 때는 표현 못하는 니글거림은 어쩔 수 없는 중생임을..... 한 번은 괜찮다. 두세 번째는 발우(밥그릇)를 닦은 고춧가루 2~3개 남겨져 있는 면수건이 참으로 찜찜하지만 할 수 없는 수련회 체험이니 받아들인다. 참으로 다행한 일(퇴숙물을 안 먹었다.)

후원공양 - 직장생활 수십 년 식판에 떠먹는 밥이었는데, 후원공양은 이와 흡사하다. 단지 내 양보다 음식 뜸 때의 배고픈 욕심에 양껏 퍼진 음식을 남겨 쓰레기통에 수북이 버렸음인데, 해인사의 후원공양에서는 잔반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솔직히 절 밥이 맛깔스럽지는 않다.
숙세의 입맛에 길들여진 중생의 입맛은 멍멍한 절 밥이 그리 식욕을 탐스럽게는 않지만, 부처님께 공양한 음식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

해. 우. 소 채웠으니 비울 곳도 얘기해야지. 시골 고향집에서 그 옛날 불일을 보던 그런 해우소이다. 그런데

생각처럼 지저분하다거나 냄새가 그리 심하지 않다. 젊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익숙치 못하겠지만 나에겐 그 옛날 시골 생각도 불러 일으켜준 장소이다. 청신녀(여자화장실)에서는 정말 좋은 거 한가지 있다. 바로 스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해우소에서 스님을 뵈면 가벼운 목례가 예의이니 합장 반배는 삼가 달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지만 해우소에서의 예의를 굳이 엄두에 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좌. 선 가부좌를 틀고 이십 여분을 버티자니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고통이 수반된다. 마음 또한 맑음 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의 뒤섞임이 많아지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각난다. 새벽별 하나 없는 캄캄한 길을 따라 계속 물소리 청명함에 귀를 씻듯 포행길의 끝은, 성철 스님 사리탑전에서의 좌선이다. 새벽공기 깊숙이 몸 속에 들이고 머리 맑음으로 시작하여 마음 맑음으로 끝이 난 좌선의 기쁨은 새로운 깨달음이다.

절-108배, 1字 1拜, 1080배 어느 스님께서 농담처럼 말씀하셨다. 절은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정말 절을 많이 한다. 법당 들어서면서부터 자리 앉고 일어섬이 모두 절이요, 스님을 만나도 절이요, 불자님을 만나도 절이니...다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했던 절보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한 절이 수백 배는 더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108배는 거뜬하다. 일자일배도 할만하다. 1080배는 당연 힘이 든다. 일자일배(513배)를 하고 나니 몸은 빠근한데 마음이 뿌듯해진다. 1080배는 비 오듯 하는 땀 속에서 흥건한 땀 냄새에 섞여 머리 속이 맑아진다. 한배한배 절을 할 때 마다 몸은 힘들지만 아무런 생각 없음이 참으로 편안해진다. 더불어 1080배가 끝났을 때의 그 희열은 내 자신에게 힘껏 보내는 박수갈채로 만끽한다.

회. 향. 식 燃臂(연비)를 맞고, 법명을 받고, 수계증을 받았다. 해인사 여름 수련회.... 말로는 쉬운 일, 몸으로 체험하기에는 힘든 일, 정신적으로는 가벼워 지는 일... 4박 5일의 짧은 시간 속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07년 여름휴가의 절정을 보내고, 1080배의 가벼움의 존재를 잠깐 알고 떠나는 시간이 지금껏 내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 중에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2007년 하계 학생자원봉사활동 후기]

막연한 의사의 꿈, 자원봉사로 확고해져~~

학익여자고등학교 김세희

나의 꿈은 의사이다. 그래서 처음 인하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반 아이들을 제치고 지원했다. 인하대병원에 봉사활동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나마 의사 선생님들을 생활을 보니 나의 꿈이 더 확고해졌다.

또한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간호사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환자들 머리도 감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내가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청소를 해드리니 고맙다고 하며 웃는 환자들의 얼굴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환자는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였는데, 우울한 얼굴이 아닌 밝은 얼굴로 재미있게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도 그 아이를 보면서 웃음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느꼈다. 예전에는 의사의 꿈이 막연했었는데, 이제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선생님이 되고 싶어졌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꿈은 조금 힘들었지만,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도 인하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싶다.



봉사 시간 채우려는 처음, 기대감 버린 마지막은 보람!

인명여자고등학교 민찬미

첫날 교육을 받고 이번 봉사활동은 좀 더 진지하게 임해야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둘째 날 카드를 닦으면서 솔직히 조금(^^) 병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 너무 힘들기도 했고 간호사님들이 살짝 무관심한 것 같기도 했기 때문이다. 셋째 날도 여지없이 청소를 했지만 그때부터 다른 기대감은 버리고 봉사를 했더니 조금 보람을 느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정말 많은 봉사를 했다. 지하까지 서류를 보내드리고, 수간호사님의 서류도 정리해드리고, 침대도 닦고, 환자분을 침대로 치료실까지 이송해 드리고, 지금은 맛있는 중식을 먹고 왔다. 우리에게 무관심해 보였지만 모두들 바쁘신 것이었고 그 와중에 친절하게 설명과 일거리들을 말씀해 주신 간호사님들과 함께 내려가서 ~ ^^

우리 같은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봉사 시간 채우려고 왔던 처음의 내 모습이 너무 후회되었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

동심의 세계는 끝도 없는 무한도전이에요.

하루 지친 어깨 늘어트린 퇴근길...
 맨발로 뛰어노와 활짝 웃음 품에 안김하나로
 하루 힘들 행복 충전으로 바꾸어 주는 바로 이런 맛...
 우리들의 동심은 삶의 충전소입니다.



오빠~~! 내가 더 잘 타지~~?

고추같은 땀방이 온통 하늘을 점령한 듯 기울어가는
 여름 햇살 속에서 받아든 한 장의 사진은...
 썰매타기에 몰입된 익살스런 아기들의 모습이
 여름 무더위를 훨훨 날려버리는 웃음을 머금게 합니다.
 우리네 어른들의 삶의 희망인 동심을 바라보는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사진 | 임상시험센터 오장열 대리 아들
 원무보협팀 조인하 대리 딸

여름을 만끽하는 꼬마들에게 뜨거운 태양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인천해양축제에서 태양과 바다를 모두 점령하고,
 해맑은 웃음 하늘 높이 띄웁니다.
 바라보는 시선속에 추억 한 페이지 담고자 들이민 카메라에
 어김없이 펼쳐진 손가락은 V(브이) ^^
 웃음속에 묻어있는 친진스러움이 푸른 바다속에 묻어듭니다.
 오늘 하루 꼬마들의 행복 바이러스에 흠뻑 취해본은 어떨런지요!

사진 | 진단검사의학과 채희영 선임병리사 자녀



엄마~~! 이번에 찍어 주세요~~!!

Q Question _ Answer _ A



Q 강직성 척추염일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에 허리통증이 있었고 군대에서 보직이 하루 종일 서있는 것이다 보니 허리통증이 약간씩 생겼습니다. 척추전문병원에 MRI를 찍어보았는데 양쪽천장관절염이 있다고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천장관절염이 있을 시 강직성척추염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염증성 요통, 척추운동장애, 천장골관절염의 소견이 보여야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골관절염과 척추염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염증성 요통(서서히 진행되는 요통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며, 아침에 요통이 심하고 뻣뻣한 강직이 동반되면서 운동 후에는 오히려 요통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임)이 있으면서, 둘째, 이학적 검사상 척추운동의 장애(쇼버 테스트) 등이 관찰되어야 하고, 셋째, 골반 X-선에서 천장골관절염의 소견이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류마티스내과 ☎032-890-2219

Q 불면증도 치료 받아야 하나요?

36세 주부입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보통 11시부터 자려고 누우면 말뚱말뚱, 결국은 5사~6시경 잠이 들어 10사~11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들어서겠지 하곤 그냥 넘어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5시간 정도는 자는 거라 괜찮겠지 했는데, 상담이 필요한가요?

A 장기간 수면장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상담권유

불면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진료가 필요합니다. 생활의 변화나 우울증, 불안증,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증상, 약물 복용, 기타 다른 기질성 혹은 정서적인 원인으로 수면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개별 진단을 위하여 진료를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불면증상이 지속될 경우 일상 생활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성 두통, 피로, 무기력감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잠들기 전에 심한 운동이나 과도한 TV 시청이나 과식을 피하고,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 있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남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간 수면 장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본원 정신과 내원하여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정신과 ☎032-890-3880

Q 13살 아들인데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요

숨을 멈췄다가 쉬기도 하고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숨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잠도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치료 하나요?

A 소아나 청소년기 코골이 원인은 편도선 비대, 수술로 대부분 해결

소아 또는 청소년기에 코를 고는 대부분의 원인은 편도선 때문입니다. 특히 코 뒤에 있는 편도선인 아데노이드란 조직이 비대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수술을 한다면 많은 경우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아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장애, 학습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수술을 하면 거의 해결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를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이비인후과 ☎032-890-2420

Q 걸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걸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픈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또 진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알려주세요.

A 통증 동반 시 진료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수술 할 수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흔한 경우로 유리체, 즉 쉽게 말해서 작은 뼈조각이 관절 내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반월상 연골이라는 구조물이 무릎 내에 존재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손상을 받았을 경우 소리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외상을 받은 과거력이 없으면서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증이 동반된 경우는 정형외과 전문의(슬관절) 진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경우와 같이 유리체나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낼 경우 슬관절에 퇴행성 변화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 정형외과 ☎032-890-2380

Question
Answer



약 물 Q & A

이유 있는 약 복용법 '한방'에 끝낸다.
약은 왜 '식후 30분'에 먹어야 할까?

1

왜 거의 모든 약은 식후 30분 복용인가요?

모든 약을 식후 30분에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에 의해 흡수가 방해되는 약물의 경우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하기도 하고, 항생제와 같이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약물의 경우 식사와 상관없이 일정간격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식후 30분 복용이 권장되는 것은 약을 공복에 먹으면 약에 포함되어있는 화학약품들이 위벽에 손상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식사 후 바로 먹으면 식사와 함께 위나 장에서 흡수가 안되고 바로 변과 함께 배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의 효과를 극대화 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복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 복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골다공증 약의 경우 왜 아침 식전에 복용하나요?

골다공증 약 중에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bisphosphonate계열 약물은 아침에 음식물 또는 음료수 섭취 최소한 30분전에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강한 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약물로,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면 약물이 음식과 함께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위 및 식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공복으로 복용하여 가급적 빨리 위에서 약이 빠져나가도록 하여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후에 적어도 30분간 눕지 않고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약이 위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3

고지혈증 약은 왜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고지혈증 약을 저녁에 복용하는 것은 생체리듬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란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중에 지방량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고지혈증 약 중 statin계열 약물들은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이 합성 과정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약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통상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체리듬에 맞추어 약을 복용함으로써 약의 효과를 최대화하기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원래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 성분으로 보통 아침 7~8시 사이에 제일 왕성하게 분비되므로, 이 시간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면 생체 정상리듬과 비슷해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3327 | 야간 032) 890-3315



코 아이 비 인 후 과 _



배성호 원장



얼굴의 중심,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코가 아름다운 코

평면에서의 한 정점인 우리 인간의 얼굴에서의 중심인 코, 세상의 중심을 지키며 의료를 펼치고 싶은 배성호 원장은 그래서인지 유난히 '코'에 관심이 많다. 코아이비후과를 개원한 것은 올 3월, 아직은 풋풋한 새내기다. 그러나 진료만큼은 전문가다.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돋보이게 해 주는 얼굴의 중심 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다운 코라고 말하는 배 원장이다.

“코는 치료든 성형이든 하면 만족도가 높아 출조,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맹목적인 성형을 한다기보다 건강한 코를 위한 성형을 함께 한다는 것이 이비인후과 성형이라고 봐야합니다.” 단순 코 성형보다는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알리지 비염 수술과 코 성형을 함께 하는 경우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아직 코 성형의 환자 수는 많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심이 큰 부분이고 이비인후과의 트렌드로 생각하고 있다. 전략적 차별이 중요한 개원가를 생각하면 배 원장의 이러한 개발, 특화 마인드는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코아이비인후과는 꽤 넓은 대기실에 여러 대의 컴퓨터와 게임기를 구비해 놓았다. 여차피 진료 전 기다려야 하는 환경이라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환자를 의뢰해야 할 경우 일단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인하대병원인 이미지가 좋다고 한다. 그러나 간혹 교통편 때문에 의뢰되지 못할 때가 있어 아쉽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발전하는 인하대병원을 기대해 본다든 바람도 전한다.

병원이 안정적인 자리에 놓이면 전문 소아과 진료 영역도 넓혀 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를 놓고 갈등하는 엄마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온통 환자의 입장만 생각하는 배 원장, 그가 생각하는 대로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 인천시 계양구 작전2동 ☎ 032-548-0005

차별화된 진료영역 구축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1992년부터 개원가에 몸담은 김홍국, 양동순 두 원장이 뜻을 합친 것은 2000년도의 일이다. 김 원장은 환자는 늘 1:1로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심분 이해해 진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의기투합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홍국 원장이 이끄는 비노기과는 요로결석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쇄석기를 이용한 요로결석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또한 진료시간과 검사시간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역시 놓칠 수 없는 매리트다.

“인하대병원 비노기과는 상당히 수준도 높고 환자 의뢰 후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원 처음부터 의뢰할 환자가 생기면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많은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로컬이지만 한 분야에 대한 전문화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와 각오는 대단하다. 바로 요로결석 치료 분야를 특화해서 적극 키우겠다는 김 원장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섭취와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권한다. 한편 피부과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양동순 원장은 미용적인 피부과 보다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원칙적인 진료를 우선으로 한다. 1차적인 진료를 담당하여 빠른 진단으로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 원장은 '지금'에 충실하려고 한다. 피부 최대 적이라는 자외선, 완전히 피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름 내내 따가운 햇볕에 시달린 그을린 피부라면 이젠 휴식과 자신에게 맞는 예방책을 세워 장기적인 피부보호를 해야 한다고 양 원장은 조언한다. 양 원장 역시 개원가에 있을 당시 인하대병원과 같은 구에 위치하고 있어 환자의뢰가 편했다. 거리상도 그렇고 인하대병원 피부과 의료진에 대한 만족도가 좋기 때문이다. 친구관계에서 진료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 함께 나선 김홍국, 양동순 원장은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진료영역 구축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오늘도 계속된다.

● 인천시 계양구 작전2동 ☎ 032-548-0033

한 빛 비 노 기 과 _ 피부 과 _



김홍국, 양동순 원장



이정희 | 자유기고가

남구, 몽골 의료 활동 지원금 전달 인하대 의료봉사단 몽골 준모드시 방문 예정



인천시 남구는 7월 2일 청장실에서 인하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창해 부원장에게 신한은행 남구 협력기금 500만원의 전달식을 갖고 인하대 의료봉사단의 몽골 준모드시 자원 봉사 활동 고마움을 전했다. 서창해 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의료 봉사단 32명은 오는 25일 8박10일의 일정으로 몽골 준모드시 투브지방 도립병원을 방문한다. 인하의료봉사단은 2004년과 2005년도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준모드시에서 몽골 의료봉사가 3번째이다.

대한임상독성학회 신임 이사장 - 응급의학과 김준식 교수 선출



임상독성학회 임원진 개선 대한임상독성학회는 최근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김준식 교수(인하대 응급의학과)를, 회장에 김승호 교수(연세대의 응급의학과)를 각각 선출했다.

건강공개강좌 개최

7월 18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저신장 공개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강좌에서는 '성장장애의 원인 및 치료'를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의 강의와 '저체중출생아와 성조숙증에서의 성장'을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소아의 정상성장, 저신장 자가진단방법, 치

료, 성장에 도움을 주는 생활, 운동 및 영양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저신장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김순기 교수는 "질병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를 통하여 정상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작다고 막연히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7월 31일 오후 3시부터 3층 강당에서 <생인 및 소아의 탈장>을 주제로 외과 최윤미 전문의의 건강공개강좌가 개최 되었다. 최윤미 전문의는 "탈장의 증상은 말 그대로 장이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볼록해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된다"고 말하며 "탈장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전체 탈장환자의 1/4 정도에 불과하지만, 드물게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탈장이 감돈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환자 위로 음악회 개최



7월 12일 오후 3시 병원 1층 로비에서 '유레카 찬양단'의 환자 위로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유레카 찬양단'은 기독교 음악봉사단체로 지난 4월부터 매일 인하대병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복음성가, 워십댄싱, 색소폰 연주, 가요 등 다양한 음악과 율동으로 입원환자와 내원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김기숙 단장은 "이제 낮익은 환자분들이 계시요"라며 단원들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환자분이 계시단 생각에 매일 찾아오게 된다고 말하였다.

인하의료사회봉사단 몽골에서 의료봉사활동 실시



인하대병원 (병원장 우제홍) 인하의료사회봉사단은 지난달 31일부터 8일까지 몽골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3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이홍식 교수를 단장으로 김영모 교수(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외과 등 의사 9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인하의대 학생 6명, 간호대학생 5명 등 총 27명으로 인하의료사회봉사단을 구성, 지난달 31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45km 떨어진 준모드시에 도착해 의료사회봉사활동을 폈다.

지난 2일과 3일에 이틀에 걸쳐 가정의학과, 외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피부과 및 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중심으로 800여 명의 시민에게 진료와 투약으로 사람의 인술을 펼쳤으며, 특히 이비인후과와 외과는 시술을 통해 몽골인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다. 이에 몽골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신문과 한인신문 기자가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 몽골에서의 인하의료사회봉사단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갖고 취재하기도 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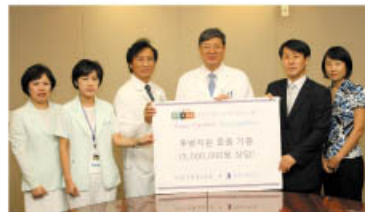
또한 6일 인하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은 준모드시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을 찾아다니며 25kg용량의 밀가루 40포를 전달했으며, 인하대병원 임직원이 모은 의류 26상재액 500벌을 울란바토르시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인하의료봉사단은 2004년과 2005년도에도 울란바토르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준모드시에서의 몽골 의료봉사가 3번째이다. 이번 의료사회봉사는 대한항공,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인천시 남구청 및 한미약품에서 후원했다.

대한항공은 10년 넘게 몽골과 장학사업, 식림사업 등을 통해 몽골과 한국과의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단에도 항공료 50%를 후원했다.

인하의료사회봉사단은 지난 8월 몽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귀국했다

'행복한 병동 만들기' - 혈액암 환자들 투병생활 중 필요로 하는 물품 기증



8월 30일 13시 30분, 병원3층 1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 주최, (주)현대홈쇼핑 후원으로 투병환경 개선사업인 '행복한 병동 만들기' 일환으로 총 3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증받는 기증식이 진행되었다. 물품들은 온갖고, TV, 노트북 등으로 인하대 병원 혈액종양내과병동(무교실)에 설치된다. '행복한 병동 만들기' 행사는 2004년 12월부터 매 분기별로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 하계학생자원봉사활동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간 인하대 병원 2007년 하계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에 인근 43개 학교 29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

인하대병원 '발기부전 치료법' 개발 착수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사업의 2007년도 신규 과제로 선정



인하대 병원 비뇨기과 서준규 교수팀이 1~2차례의 약물 주입으로 발기부전을 완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나섰다.

인하대병원은 서 교수팀의 '국소적 혈관생성 및 신경재생 제어기술을 이용한 음경기능 재생' 연구과제가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사업의 2007년도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고 8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 교수팀은 올해부터 5년간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분야의 교수 4명과 연구원 10명이 참여한다. 연구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혈관성 요인이나 외상, 복부수술과 같은 신경손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발기부전의 경우 약물을 1~2차례 음경에 주사해 완치하는 치료법이다.

서 교수팀은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및 당뇨성 혈관 합병증 등 다양한 혈관질환의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당뇨성 말초신경장애, 수술 및 외상으로 인한 말초 신경손상의 치료제 개발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은 원인 별로 다양한 병변의 동물 모델들을 들고 각 모델에서 적절한 약물, 재조합 단백질, 치료 유전자, 세포 등을 맞춤 의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발기부전 분야에서의 기술(국소적 혈관생성-신경재생 제어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서 교수팀의 이번 연구사업은 현재의 치료법을 초월하는 차세대 치료법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인을 돕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본원에서의 봉사활동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건강한 자신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병원 조직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 <평생학습을 위한 영어단어기억술> 출간 - 암투병 중인 동창을 위한 기금 마련 목적



이 책은 김순기 교수가 고교 동창 사이트에 연재하였던 것을 정리하고 확대하여 만들었다. 어색하면 이의가 제기되고 더 좋은 표현으로 고쳐지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 책의 수익금의 일부는 암으로 어렵게 투병하는 동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완성하였다. 고교 동창으로서 부인은 위암으로 1년 전에 사망하고, 본인 역시 신장암 4기로 현재 인하대병원 내과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자녀를 역시 엄마, 아빠의 질병 충격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지속적인 보조와 관심이 필요한 때에 그를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책을 출간하였다고 한다.

이 책에 실린 단어 정도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거의 다 수록하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많은 단어를 수록하였다. Times나 Newsweek에 나올 정도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단어 역시 부족하지 않다. 솔직히 이 한 권이면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교고생 이상의 영어단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토플이나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 영어단어 기억에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헌자 지식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 도서출판 진원
- 저자 | 김순기
- 교보문고에 있습니다
- 032-467-4544

사회복지안내

※ 2007년 상반기 사회복지기금 기부현황(3월~8월)

구 분		금 액
원내모금	직원약정금(급여공제)	17,215,000원
	급여자투리모금	13,365,861원
사랑의 바자회		17,466,320원
원외기부	성옥제님	1,000,000원
	회원 '오공' (본원 입점)	2,400,000원(기부약정)
	기타	12,091,180원

*성옥제 님은 팔순 잔치에 받으신 용돈을 모아서 기부를 하셨습니다. 개인의 경사를 사회와 함께 나누는 건강한 기부문화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시는 성옥제 님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사회복지기금 지원현황 및 후원 안내

2007년 상반기는 모두 7명에게 9,805,5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의 문턱이 높기만 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셔도 병원비에 맘이 더 편치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건강을 되찾아 다시 힘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6-236422-13-010 (예금주: 인하대병원)

♥ 후원참여문의: 진료지원과 032-890-2870,2873 (담당자 원공주, 신소영)

인하대병원 로비의 따사로운 햇살-자원봉사자

※ 외래안내 봉사팀을 소개합니다.

이 분들은 매일 3천명에 이르는 외래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고 가는 병원 1, 2층에서 안내를 하시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직원이 아닌 다음에야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첫 방문이던, 몇 년을 다니던, 늘 낯설고 어려운 곳입니다. 외래안내봉사자들은 그런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해 언니나 친구, 딸처럼 친근하게 다가가 병원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립니다. 진료실과 검사실에 직접 모셔다 드리고, 거동이 힘든 분들의 약도 타드리고, 버스노선도 알려 드리고 진료받으면서 생긴 불만을 들어주는 일들도 이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환자분들이 별걸 다 찾으세요” 하면서 봉사자 가운 주머니 가득 휴지며 안경 닦는 수건, 사탕 등을 일일이 챙겨가시는 봉사자님들... 이분들이 있어 인하대병원 로비를 비추는 햇살이 더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 자원봉사 신청문의: 진료지원과 032-890 2873 (담당자 신소영)



세계유방암 학술대회



7월12일 오후 2시 3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공개강좌가 개최되었다. 외과 문연희 전문의의 '유방암과 유전자'라는 강의와 성형외과 권순성 교수의 '유방암의 수술과 재건'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에서 권순성 교수는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유방암 치료시작 단계에서부터 재건을 고려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다양한 재건술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 세계유방암 학술대회일정

- * 일 시 | 2007년 10월 11일 ~13일
- * 내 용 | 미국의 저명한 유방암재단인 The Susan G. Komen for the Cure로부터 지원을 받아 세계유방암학술대회(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GBCC)를 한국에서 10월에 개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를 위해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유방건강재단,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공동으로 준비
- * 장 소 | 서울, 웨리튼 그랜드 워커히 호텔
- * GBCC 2007 홈페이지 | <http://www.gbcc2007.org>

● 2007 핑크리본사람마라톤대회

- * 일 시 | 2007년 10월 14일
- * 장 소 |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월드컵공원
- * 기념품 | T-셔츠, 모자
- * 참가부문 | 회망코스(10km), 건강코스(5km)
- * 기록계측 | 10km 자동기록계측 칩사용(Net time) / 5km 기록 미계측
- * 참가인원 | 8,000명
- * 대회시상 | 10km/5km 여자 1위~3위
- * 참가비 | 10,000원(참가비는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 * 접수방식 |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http://www.pinkmarathon.com>)
- * 접수기간 | 2007. 6. 20(水) ~ 9. 21(金)
- * 주 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 * 주 관 | 아모레퍼시픽, ㈜아이스핏커뮤니케이션
- * 후 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유방암학회



*인하대병원원보 설문조사 결과 및 당첨자

<인하대병원보> 고객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이 되어주시는 격려, 보다 나은 모습을 기대하며 주신 질책, 모두 소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인하대병원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김영돈 인천 동구 숭실마을
반성희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진선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일기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정진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이정하 부산 진구 부전2동

이숙경 인천 남구 용현5동
이현구 충남 서산시 애전동

박은숙 인천 남구 용현동
송철호 전남 완도군 금당면

퀴즈 퀴즈 제39회



※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 000000는 로봇 팔에 특수한 소형 선행가속기를 탑재하여 사람의 팔과 같이 어느 위치나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며, 타겟(암)에만 정밀, 정확하게 에너지를 조사(Delivery, 照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사일 항법 장치와 동일한 영상유도장치를 응용하여 암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뇌종양 방사선 수술장치가 머리에 프레임(머리 고정틀, 마취 후 부착)을 장치하나 000000는 고정틀 없이 자유롭게 뇌종양을 치료하고, 폐암, 간암, 췌장암 등 전신 암 치료 적응증이 넓어져서 수술이 어렵거나 기피하는 환자는 000000로 암 수술의 효과를 재현 할 수 있게 되는 방사선치료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인하대병원은 금년 11월 설치예정이다.



2 다음은 탈장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음낭수종의 경우 생후 6개월까지는 수술 없이 관찰하여도 된다.
- ② 서혜부 탈장의 증상은 사타구니(서혜부)가 볼록 튀어 나왔다가 없어지고는 하는 것이다.
- ③ 서혜부 탈장은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없다면 지켜보아도 된다.
- ④ 탈장은 치료시기가 늦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수술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생된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000000000은 2004년과 2005년도에도 울린바토르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준모드시에서의 몽골 의료봉사가 3번째이다. 이번 의료사회봉사는 대한항공,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인천시 남구청 및 한미약품에서 후원했다. 대한항공은 10년 넘게 몽골과 장학사업, 식림사업 등을 통해 몽골과 한국과의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단에도 항공료 50%를 후원했다. 가정의학과, 외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피부과 및 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중심으로 800여 명의 시민에게 진료와 투약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쳤으며, 특히 이비인후과와 외과는 시술을 통해 몽골인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다.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원 고 모 집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잔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 E-mail : inhapr@inha.com
 ■ 보낼 곳 : 기획홍보팀
 ☎ 032-890-2602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 기획홍보팀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보현팀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



받 는 사 람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기획홍보팀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 인하중양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885)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예금주 : 인하대병원 - 우리은행 : 106-276015-13-018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07년 08월 31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19명	445,262,848원	297,136,220원	

◎ 기부자 현황 | 2007년 07월 01일 ~ 08월 31일 현재

일자	성명	약정액	비고
'07. 07. 18	최윤환	₩70,000	영상의학과(원납)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Quiz 정답

1

2

3



인사동정

보직임명

인하의료사회봉사단장		
마취통증의학과	이홍식	
대외협력실장겸직		
영상의학과	김원홍	
대외협력실 국제업무담당		
외과	허윤석	
대외협력실 국제업무담당		
소화기내과	이정일	
적정진료실		
법무관리담당	이도익	
적정진료관리담당	안중식	
고객서비스 관리담당	김연희	
산업의학과 관리담당	김명환	

승진임용

내분비내과	교수	남문석
외과	교수	조영업
외과	교수	김세중
외과	교수	이건영
정형외과	교수	김려섭
신 경 과	교수	나정호
가정의학과	교수	최지호
소화기내과	부교수	이진우
영상의학과	부교수	이경희
재활의학과	부교수	김명옥

신규임용

순환기내과	일반의	최웅길
정형외과	일반의	김경훈
산업의학과	일반의	박일호

전근 및 소속확인

적정진료실	김진영, 박지영
간호부	조석희
원무보함팀	심학수

신규채용(입사를 환영합니다)

병동간호팀	송시은, 송은주, 박정선, 안미경, 양혜림, 김남희, 전해진, 나현아, 김소영, 장유미, 구두향, 강태령
특수간호팀	구영숙

친절직원

8월	병동간호팀 문옥희(동9병동)
9월	병동간호팀 이소순(서15병동)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 유방전문과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매일 둘째주 (월) 오후 3시~5시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무료공개 강좌

구 분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137회	09월 13일(목) 오전 10시	우리아이 사회성 어떻게 키울까요(영유아기 정신건강)	정신과	이정섭
138회	10월 17일(수) 오후 3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외과	조영업
139회	11월 27일(화) 오후 3시	주부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비뇨기과	박원희

• 강의일시 : 매일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15:00 ~ 16:00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 ☎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Table with columns: 진료과, 교수명, 세부진료과목, 진료요일 (오전, 오후), 비고. Rows include various departments like Internal Medicine, Pediatrics, Surgery, etc.

Table with columns: 진료과, 교수명, 세부진료과목, 진료요일 (오전, 오후), 비고. Rows include departments like Radiology, Pathology, Dermatology, etc.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청색) : 클리닉만 진료
• 토요일 오전진료는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